

온 지구촌에서 살생을 저지르는 모든 테러집단을 멸하고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8월 28일 (토) 제 183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탈레반 아프간 장악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세력 부활

세계 언론, 알카에다/IS 공조 협력으로 전면테러 양상 전개 가능성 우려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미군 철수와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재집권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이 빠진 '제국의 무덤'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탈레반 2기를 짚어 본다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장악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지난 18일 "탈레반의 승리는 아프간에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세력의 재건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극단주의 매체를 감시하는 시테인텔리전스 그룹을 인용한 WSJ 보도에 따르면 친알카에다 성향의 미디어 계정은 최근 "탈레반 형제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아프간은 정복됐고, 이슬람은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초당적 중동연구소의 찰스 리스터 반테러정책국장은 "(탈레반의 카불 입성은)이심할 여지없이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알카에다에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 쉴 공간과 안전한 피난처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징후는 곳곳에서 비치고 있다. 인도 매체 더힌두는 18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파키스탄 기반 무장단체인 자이시에모하메드(Jem) 등 극단주의 세력 대원들도 혼란을 틈타 카불에 입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가 카불에서 탈레반의 세력이 크지 않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다.

IS는 알카에다의 경쟁조직이자 탈레반과도 긴장관계에 있다. 머지않아 탈레반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내전을 벌인다면 혼란상이 가중될 수 있다.



서방 정보당국은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재건 시기를 재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분석에 따르면 미군철수 이후 18개월에서 최대 2년 안에 재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탈레반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정보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체는 알카에다다. 알카에다는 오래전부터 아프간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탈레반과 역사적,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편이다. 정략혼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01년 10월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탈레반 정권에 오사마 빈 라덴 등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내놓으라는 요청을 아프간 측이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제재이행 보고서도 이들의 관계에 주목했다. 지난해 2월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발간된 보고서는 "탈레반은 미국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알카에다와 협의를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탈레반-알카에다의 접점이 되는 세력은 '하카니 네트워크'다. 탈레반 지도부인 시라주딘 하카니(38)가 이끄는 조직이다.

킹스칼리지런던 안보연구소

의 피터 노이만 연구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많은 단체들이 미국에 대한 승리를 선전하기 위해 편승하려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위협 요소는 이들이 소셜미디어(SNS) 캠페인으로 '나홀로 행위자'에게 국지적인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국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TV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의 성지가 돼선 안 된다"며 "테러단체는 아프간에 존재하며, 불안정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이슬람 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탈레반의 카불 입성 직후 "아프간이 테러가 자생하는 터가 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합의 없이 아프간의 새 정부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IS가 집결하게 되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돌팔매나 참수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을 허용하고 여성의 전신을 구속하는 부르카를 강제한다. 이는 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아랍어로 '샤리아(sharia)'는 무슬림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알라를 향한 길'을 뜻한다.

(3면으로 계속)



공립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논쟁

VOA, 미 언론의 주지사 vs. 교육구 대립 보도

미국 학교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몇몇 주에서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주 정부와 교육구가 대립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주 내 몇몇 교육구는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GOP governors, school districts battle over mask mandates: Mask rules in U.S. public schools vary widely. Eleven states require masks, while seven other states prohibit mask mandates. The rest leave it up to local officials).

현재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8%가 두 지역에서 나왔다.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에서도 지난 6월 이래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가 6배나 뛰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지사가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다. 관내 몇몇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에 맞서 주지사가 이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되

고 있다. 이들 지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이유는 먼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주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에 나온 CDC 권고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렬 목사



3면 푸른초장 김창설 목사



9면 본사방문 박성현·장현경 박사부부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com | c/o: 1919@jcp.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는 설립 53주년을 맞이하는 PC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주일 두 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온 교회입니다.

신실한 담임 목회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1. PCA 소속이거나 가입에 적합 하신 분
2. 정규 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4. 합법적으로 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시민권/영주권자)

제출서류

1. 이력서 (본 교회 소정양식) 및 가족사진
2. 최근 설교 2편 (음성/영상 파일 혹은 웹 주소)
3.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력서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kucp.org/pastorinvitation>

제출 및 문의처

이메일(Preferred): PulpitCommittee@kucp.org

우편 주소: Pulpit Committee KUCP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제출마감: 09/11/2021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The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Website: www.kucp.org E-mail: pulpitcommittee@kucp.org

발행인 칼럼

사모는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렇다. 성경 어디에도 "사모"라는 단어가 없다. 명칭이 없으니 그 말해진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성경뿐 아니다. 세계 어느 교단의 헌법에도 목회자의 아내에 대한 명칭이나 역할을 진술해 놓지 않았다. 나름대로 내규가 있는 교회에도 "사모의 권한과 기능" 등과 같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교회는 한 곳도 없으리라.

그러나 있다. 한없는 책임과 끝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사모는 있다. 특히 한국교회 더더욱 한인 이민교회에는 사모의 강력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모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참느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에게 남다른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사모는 그 자신이 안수를 받은 성직자도 아닌데 성직자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거룩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사모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데 사모에겐 크나큰 의무가 있다.

사모들의 이야기와 사모에 대한 이야기가 붓물처럼 쏟아졌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되었던 필자가 속한 노회 가족수련회에서의 일이다. 이번 수련회에 다른 강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모든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강사이셨다. 책박한 이민 땅의 이민목회자를 내조해온 사모님들의 감춰진 이야기, 묵묵히 목회의 길을 따라온 아내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목이 메어 말을 멈출 때가 많았고 아예 대놓고 우시는 일도 있었다.

"제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날 자장면 집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보채는 거예요. 그날 호주머니에는 자장면 한 그릇 값밖에 없었어요. 무작정 네 사람이 들어가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아이 둘이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아내와 나는 식탁에 놓인 노란 무만 집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날보다 금식한 날이 더 많기도 했지요." "남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먼 나라에 선교센터 짓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70만불에 대출까지 받아 100만불 현금 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나 다시 태어난다면 그대와 또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가장 위대한 설교학 교수입니다." "가족 식사만도 챙기기 힘든데 매주일 성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새벽예배를 일년 열두달 하루도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새벽예배 설교를 주일설교와 똑같이 정성스레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의 강의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나?" 묻는 강의가 있었다. 정답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어머니"였다. 맞아. 어머니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깊고 위대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나 알아준다.

사모는? 모든 어머니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르는 사모. 어떤 어머니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모를 알아주는 자는 없다. 자녀는 물론 목사 남편도 잘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회 현장 어디에도 그는 말없이 있다. 그가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서 제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 아프가니스탄/영국교회 수련회가 열렸다. 수련회 첫날 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목사가 탈레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TGC, 난민사역전문가 마크 모리스 목사가 밝힌 새 시대 맞게 된 아프간 교회 소개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 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라고 마크 모리스 (Mark Morris, Union University's Memphis College of Urban and Theological Studies)는 도시신학과 학과장이며 난민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화 시키는 사역을 하는 멤피스 난민센터의 리더가 전했다.

그는 아프간 현지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무혈 입성하기 전에 점점 더 다가오는 이슬람 극단주의 광풍에 어떻게 아프간 목회자들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질곡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믿고 있다(How Afghan Pastors Reflect on God's Sovereignty).

7월 초 아프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아프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앙을 등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독교로의 개종 자체를 금지하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교회 지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참된 믿음을 법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와 비행기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룬 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이 아프가니스탄의 형제자매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이 그 도시와 국가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펴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과 마주했다. 그는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진흙일 뿐이다. 우리는 또 이사야서 8장과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기초석과 거칠게 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서 제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서 제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서 제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

게 마을을 빼앗긴 신실한 신자에게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한 아프가니스탄 목사의 말을 들었다. 이 신실한 형제의 열네 살 딸은 아버지로 부터 강제로 떨어져 나와 탈레반이 "결혼"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여자라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이슬람 특권과 책임"이라고 부르는, 사실상 성노예로 끌려갔다고 했다. 토요일 들어서 탈레반이 이미 카불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아프간 친구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또한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떠날 수 없었다. 도로

는 재앙이었다. 때때로 바로왕은 자신의 마음을 안고하게 만들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셨다. 방에 있던 한 아프가니스탄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7장 6절과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확실하게 탈레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펼쳤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

들의 이미지를 목상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모두는 탈레반이라는 폭풍우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인 예수님이라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비밀 교회모임에서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이 주었던 훈계를 요약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 1.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2.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겸손한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Services include general medicine, surgery, and various specialties.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located at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Services include general dentistry, orthodontics, and emergency care.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1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합니다.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the admissions office and a list of application steps.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예매 및 개설 과목 시간표. Includes a table of courses like Biblical Greek I, OT Historical Books, and Soteriology.

Information regarding the Master's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and Doctor of Theology), including admission requirements and curriculum details.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탈레반 아프간 장악...

(1면에서 계속)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교의 신도는 현재 18억 명,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가깝다. 무슬림 중 대다수는 폭력에 반대하지만 과격주의자들은 다르다. 절도범의 양손을 자르고 간음하면 돌팔매질을, 반역하면 침수형

에 처한다. 아프가니스탄 연구학자 헤더 바는 "탈레반이 해석하는 샤리아 법은 주류와 동떨어져 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기괴하다"라고 급진 과격주의의 위험도를 한마디로 지적할 정도다.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알카에다와 IS 소속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의원은 "우리는 20년 전의

상황에 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고 9.11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면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또 다른 '테러와의 전쟁'을 상기시킨다. 테러 단체들의 자금줄은 양귀비다. 아프간 외곽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양귀비에서 추출한 헤로인은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해왔고 수익은 매년

20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따라서 아프간을 무대로 녀겨온 자금 조달을 가진 과격 이슬람 세력들이 미국이나 서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면 사실 지구촌 테러는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주 강력한 이슬람 이념이 존재가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립학교 마스크착용...

(1면에서 계속)
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자녀보호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문제는 교육구나 주 정부가 아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

육구들은 CDC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주들 상황은 살펴보자.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관련 규정이 다양하다. 먼저 캘리포니아와 캔터키주 등 11개 주는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반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9월 29일부터 이 조치가 적용된다. 그리

고 나머지 주는 지역 정부에 결정을 맡겼다.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시시피주에서 많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시시피주에서 학생 약 2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다. 2만 명 이상이라면 미시시피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은 지난 9월 이래 학생 4천500명 이상과 교직원 약 950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아이 약 2천 명이 병원에 있는데 많은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고 일부는 나이가 네 살 아래라면서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성인용 코로나 백신은 나왔는데 아이들을 위한 백신은 아직 없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3.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고난과 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4.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5. 마지막으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

로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격동의 바다로 인도하신다. 찬양 리더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골랐다.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아프가니스탄 형제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다 빼앗긴대도/진리는 살아서/그 나라 영원 하리라/아멘. 월요일 아침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말에 예비하



신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린다. 이 어려운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탄식하며 울었다. 주말을 기점으로 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 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 여기 멤피스에서 사역하는 한 아프간 목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단어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는 어떻게든 Mohabat.tv와 facebook.com/afghantv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소망의 메시지를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라이브 방송할 것이다. 토기장이는 오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토기를 만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정보교회)

지난 두 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한 사건이 있다. 아이티에 지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11년 전에 지진으로 22만명이 목숨을 잃은 후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노예로 잡혀와 수백 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오는 질문이 있다. It is not fair,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현재 전 세계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뉴스가 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인다는 소식이다.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에 붙었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내 아이라도 살려달라고 담장 너머 미군병사를 향해 아이를 집어던지는 엄마의 애절한 눈빛.

아프가니스탄은 99%가 무슬림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나라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몇 년에 이슬람권 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전파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앞으로 기독교인은 모두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에게나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수많은 사람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시편의 아삽과 같이 질문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시편73:2). 한 마디로 주님, 이걸 아니잖아요? 복음성이 가사는 "하나님 한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를 노래하지만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을 때 불합리한 세상에 아파할 때 신자로서 마음껏 불평하지도 못하고 고통 할 때가 왜 없겠는가? 필립 안시의 책 제목이 떠오른다. Disappointed with God(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Jennifer Rothchild는 God Is Just Not Fair(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라는 책의 제목으로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린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과연 존재하시는가?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다.

때로 풀리지 않는 고난 앞에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다. Bart D. Ehrman은 그의 책,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하나님의 문제: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고난에 답하지 못한다)에서 자신이 왜 신앙에서 떠났는지를 밝힌다. 저자는 미국의 보수적 학교인 무디신학교와 위튼대학교를 졸업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를 포기한 사람이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진다.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참새가 아니라 이제 20살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소년이라면, 이제 한참 자라나는 아이를 두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40대 아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이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나오기 마련이다. 주님, 세상이 이런데 제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신앙인에게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최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책에서 저자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마침내 고백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이지도 모른다."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세상이 다 불합리하게 보일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가슴이 무너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이런 최악 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무너진 인간 세상에 치유가 있고 해결이 있다. 주님,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preachchrist@kcpc.org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kpc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N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를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N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회경력: 5년 이상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 40-55세까지)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CD, DVD, Web address)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신앙 간증 /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추천인 1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9월 19일
제출처: chappark01@gmail.com
Calvary Presbyterian Church 110 Susie Dr, St. Robert, MO 65584

기타
1.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아프카니스탄의 사태를 보며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기가 지는 많은 시련과 피흘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는 옛 그제 아프카니스탄이 무너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보았다. 흉남 철수나, 월남 패망의 순간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재현하는 것일까 싶다.

아프카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를 선포한지 단 몇 개월 만에 보인 참

상이다. 20년간 그 많은 돈을 투입하였고, 자주국가로 설 수 있도록 30만 군대를 훈련시킨 결과치고는 허망했다. 이태리 신문 기사를 보니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등에서도 군대 파병은 물론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토록 쉽게 무너진 이유가 집권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한다. 도와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주머

니에서 나온 귀중한 것인데도 받는 입장에서조차 마치 요술주머니에서 샘솟듯 나오는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위기의 순간이 오자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탈출하였는데,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 일부는 공항에 남겨두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나만 살고 배부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게 된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함께해야 할 텐데 말이다. 나이가 70이 넘는 대통령이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지 놀랍다.

이런 패망의 상황을 TV로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 역시 미군이 6.25전쟁 후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강국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있을 까 싶다.

며칠 전 간첩단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들은 데모를 주도했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고 한다. 아프카니스탄이나 월남이 패망한 이유도 내통하는 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다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상태가 해이하게 되면 실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지키려는 그리스 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페르시아 군은 줄행랑을 쳤고 결과적으로 마라톤 대평원에서 20만의 대군을 이끌던 다리우스는 그리스 군 1만에게 대패했다.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고 군대의 수가 많다는 점이 전쟁에서 필연적인 승리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공격하는 자는 땀 흘려 뭉쳐있는데, 지키려는 자는 애국심이 없다면 그 싸움은 벌써 패한 것이

기 때문이다. 아프카니스탄은 30만의 군대라고 했지만 허수였고, 싸움 의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를 결행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국가가 전복되고 말았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후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적화통일에 대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가공할 핵까지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방어해야 할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려 해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가니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뽑는 새 지도자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현실이다. 그것이 가장 위협스러운 문제다 싶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며 유례없는 독재로 적화통일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제도 하에 사상과 행동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정원을 없애라, 미군 물러가라고 소리 높여 외쳐댄다.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들은 그런 외침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조금씩 그 외침에 부합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공산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데, 그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풍요와 자유가 가져다준 결과가 아닐까 싶다. 자유는 언제나 강력한 힘을 근거로 지켜지는 것인데 유약해져가는 징후가 보여 불안하다. 이런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유사시를 위해 이태리처럼 우리도 전술핵을 소유할 수 있다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에베소서에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곧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교회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 모습이 이 에베소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는지,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단지 바울이라고 짧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가 3년 넘게 자신들을 목양했던 바울사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곧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

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꼭꼭 짚어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녔고 내 목소리로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내 육신을 상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갔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목인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

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우리의 physical address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의 아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당시 편지를 쓸 때에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지만 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이 에베소서의 '은혜와 평강'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삶에 은

혜와 평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진 셈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평강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강은 나만 평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내 옆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평강이 깨졌다면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신 값을 치루신, 곧 속량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사도는 로마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매여 있는 몸입니다. 유대교의 축복받던 리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엘리트였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찬송이 아니라 한숨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도 바울사도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면으로 계속)

“찬송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1-14절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회공산주의 사상 캠프로 변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실체

오늘은 Prager University의 설립자이자 라디오 호스트인 Dennis Prager 교수가 학부모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alert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추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목사님과 저 또한 지난 10년간 공립학교의 실체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대도시들뿐 아니라 하와이 같은 여행지로 유명한 주들을 비롯하여 미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잘못 세뇌시킨 사회공산주의로 넘어갈지 매우 심각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안을 가장 먼저 (first-hand로) 받아보는 단계이기에 주정부와 미연방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주정부나 미연방정부) 결국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의 현 바이든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저희 한인 이민가정들과 교회들뿐 아니라 최고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다운 미국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국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Dennis Prag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좌익 세력의 공격에 놓여 있다. 그리고



Love your mother Earth(지구본) 등 반기독교 교육표시들임

그 공격이 향하고 있는 곳들은 바로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 가정, 어린이들, 정부 기관들, 스포츠, 뉴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의료계, CIA, FBI, 주정부 부서, 군대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반기독교 좌익 세력에 맞서기 위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오는 것이다.”

데니스 프래거 교수의 설명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거 포인트를 번호로 적어 정리해드립니다.

1.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을 대표하는 STEM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들에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그다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가?
2. 제대로 된 학습을 가르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조기성애화 교육을 유치원부터 가르치면서 당신 자녀들의 순결을 빼앗아 가고 있다.
3. 거짓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젠더 성교육과 마약을 아무렇지 않고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수업등등 공립학교의 수업들과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아이들의 지성과 정신(mentally)에 큰

악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상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 현실임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는가?

4. 미국을 설립했던 가장 기본되는 최고도 가치관들을 모두 왜곡시켜서 “악”이라고 가르치며 미국을 노예를 부르기 위해 설립된 나라로 역사를 왜곡시켜 가르치고 있다. Critical Race Theory가 바로 그 본질.

5. 그 심각성은 수업시간에 한 특정인종을 중요하는 인종 차별 중심의 교육을 하기에 바쁜 나머지 예술, 음악 같은 과목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미국에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마치 자녀들을 가지고 도박(gambling)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7. 바이든 현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다 다시 바꾸어 오바마 전 대통령시대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수많은 유치원생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성별은 네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 유치원생부터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교학적이고 아이들의 정신과 육신에게 치명적인 내용들을 가르친다.

9. 법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은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boys and girls”로 부르지 않도록 하는 주정부와 공립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증거다.

10. 당신의 자녀들은 클래스에서 자위행위를 배우며 자주 할수록 건강한 거라고 배우고 있다. 11. 1학년부터 요란한 여장을 하고 여자 가발을 쓴 트랜스 남자들이 읽어주는 “Drag Queen Story Hour”에 참석하도록 거의 강요당하고 있다.

12. 당신의 자녀는 이런 학교에 매일 다니면 빠르면 한달, 아무리 길어도 1년만 되면 그들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강력 반기독교 사상을 펼친 막시즘 사회공산주의 운동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의 실체를 알고 자녀들을 계속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엇이 답인지 알면서도 선택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고요.

공립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빼내는 것은 급선무이긴 하지만 what's next?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을 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호세아 4:6-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금이 포스트모더니즘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더니즘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차이를 비교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견지에서 이 두 사상 체계와 사조를 비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버에서 이희은

A: 질문에 돌려 나누어 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모더니즘시대의 사상체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더니즘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계몽주의(Enlightenment) 이후에 생겨난 사상 사조로 근대주의(Modernism)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승구 교수의 ‘광장신학’을 참조해 설명합니다.(p.348-360).

1)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에 의해서도 이성이 중시되었지만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은 한층 더 강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앉혔습니다. 이성중심을 강조하다보니 성경도 이성으로 비평하여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 모더니즘사상은 한마디로 신앙의 골레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입니다. 2)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근대사상에 의하면 이성이 파악한 것만 객관적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선호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치부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만 객관적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 중시, 객관성 강조, 인간중심주의

3)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적 경향입니다. 근대사상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관찰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보에 대한 신뢰는 케플러가 말한 “비행기술이 발명되기만 하면 그 즉시 달에 인간 식민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보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허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겠지만 인간은 날로 약해지고 미래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4)인간중심주의(humanism),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간의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고 행복과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를 가진 위대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휴머니즘의 이상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류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신앙이나 종교도 인간들에게 유익을 줄 때에야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중심이고 성경중심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을 추구하는 근대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실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성에 따라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르네상스 이후의 보편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 및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미국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던 패턴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불편함으로 돌아가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에 종사자들에 대하여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과 개인 기업에서도 우리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개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두려움이 전 세계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 미래에 대한 공포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오히려 두드러지게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평소와 하나님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평온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란과 고난 속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때론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로 이끄신다는 고백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것을 지켜내야만 그 고백이 진짜가 됩니다. 그런 삶으로의 경배와 감사야말로 우리의 예배요 삶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21세기의 팬데믹이 어떤 유익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했는가는 확증해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은 유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 모임, 온라인 쇼퍼와 배달, 인터넷을 통한 연구, 랜선 투어 등등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유튜브 영상과 비대면 훈련 및 쌍방향 통화의 성경공부 등 상상을 초월할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대신에 선교지에 보낼 영상제작, VBS 영상 나눔 등등 너무 많습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런

진전은 앞으로도 요원했을 것이 오히려 상황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인내의 믿음은 지금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교회는 언제 어느 때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다. 다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얻는 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이다”(시143:10).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어선에 세워진 십자가 강제 철거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지난달 중국 저장성 취산도 당국자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어선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사진)를 강제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에 새겨진 '임마누엘'이라는 문구를 지우기 위해 페인트로 덧칠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이 지역 공무원들은 지난 1일 어업 금지가 풀려 어업을 준비하는 어민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십자가 철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어민은 어업 허가와 연료 구입을 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취산도는 인구 약 7만명 중 3분의 1이 국영교회인 삼자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까지 합하면 섬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일 것으로 보인다.

취산도에 복음이 들어간 건 150여년 전이다. 1863년 영국의 선박 한 척이 암초에 충돌해 침몰하자 취산도 어부들이 선원 24명을 구해주면서 영국 영사관은 감사의 뜻으로 '예수님, 빛을 비취주세요(Shine Jesus Shine)'라는 글씨가 새겨진 대형 평판을 어부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선교사들과 성경을 보냈다. 이후 배에 십자가를 세우는 건 취산도의 전통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문구를 자신들의 집 현관과 배에 새겼다.

탈레반 장악 아프간...현지 기독교인 위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교 중동연구원 교수는 18일 "탈레반은 반기독교적 정서가 극단인 집단"이라며 "미국의 철수는 생각보다 빨랐고, 기독교인들은 탈레반이 장악했을 때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도 지난 16일 "탈레반이 신속히 진격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대담해졌다"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아프간 전역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나 기독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관리재단 김진태 사무총장은 "아프간은 여행금지 국가라 외교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다. 한국국제선교협회나 위기관리재단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 선교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탈레반이 외국 국적의 기독교인들은 아프간을 떠났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남아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이다. 릴리스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의 한 교회 지도자도 릴리스와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에서 망명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알리 에사니도 이탈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한 상황을 알렸다. 에사니는 "카불에 살고 있는 가정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았다. 부부와 다섯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며 "그런데 아이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돌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게 알려지면서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아프간 주변국은 페르시아어로 지역, 장소와 땅, 나라를 뜻하는 '스탄(-stan)' 국가다. 국명이 스탄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7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다른 나라들도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교다. 김 교수는 "현재 스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적 이유를 감안했을 때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도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민과 중동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은 위급한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중동국가에 있는 A선교사는 "탈레반이 여성인권 존중 등 조건부 변화를 예고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아프간에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다.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라고 말했다. 터키에서 난민 사역 중인 B선교사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탈레반, 소수민족 민간인 9명 학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공세를 펼치며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종파가 다른 소수민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BBC 등 외신은 20일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지난달 4-6일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에서 9명의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가즈니주 말리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하자라족 주민들은 당시 탈레반과 정부군 간의 전투가 격화하자 산으로 피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시 문다라크트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곳엔 약탈을 끝낸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탈레반은 비무장 상태인 주민 6명의 머리에 총을 쏘 숨지게 하고, 나머지 3명은 잔인하게 고문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시신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들이 "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려 하나"고 질문했지만 탈레반은 "전쟁 중엔 모두 죽는다. 총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속한 하자라족은 아프간에서 인구가 3번째(9%)로 많지만, 탈레반의 세력 기반인 파슈툰족(42%)에 의해 줄곧 탄압받아왔다. 파슈툰족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인 반면 하자라족은 아프간 내 소수 종파인 시아파인 탓이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당시 하자라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이들을 고향에서 내쫓았다. 최근에는 중부 바미안주에 있던 하자라족 지도자 압둘 알리 마자리의 석상도 파괴했다.

엠네스티는 이로 미뤄 최근 탈레반이 내놓고 있는 유희적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를 상기시킨다"면서 "이는 탈레반 통치와 가처를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적 살인은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들이 탈레반 통치하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유럽 "동맹 회복 외치더니 실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실망한 유럽 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외교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가 불과 2개월여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이 영국을 흔들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약속한 동맹이 아니라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에 나서며 '동맹 회복, 대서양 연안 국가와의 관계 재활성화, 동맹 및 다자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는 이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톰 투겐다트 의원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 '미국 고립(America alone)'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국은 미래의 안보 작전에서 미국과의 관계 조건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집권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교민주연합 요한 와데폴 부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아프간을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게 좋은 생각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매우 짜증 나는 상황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레미 사피로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연구소장은 "미국은 적어도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정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성 없는 월요일 연설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고, 동맹국으로서의 미국 신뢰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킹고리치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 "미국 정부가 20년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대형 실패를 전 세계가 목도했다"며 "대만, 유럽, 한국, 혹은 다른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TGC,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소개

미국 복음연합(TGC)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에 대해 글을 올렸다. TGC는 "우리는 잔인한 이슬람주의 정권인 탈레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탈레반이란 이름은 '학생'을 의미한다. 원래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및 남부 파슈툰 지역의 종교학생(탈레반) 운동이었다.

둘째, 탈레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란과 전쟁 훈련을 받았다. 원래 탈레반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는 그들의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은 무장단체로 조직됐다. 학생들은 공부에만 참여하는 그룹과 종교전쟁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그룹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셋째, 탈레반은 아프간 내전 동안 집권했다. 1979년 12월 당시 3만명의 소련군은 공산주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88년 철수 전까지 10년간 주둔했다. 소련철수 이후 내전은 96년 정부가 탈레반에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구원을 위한 연합이슬람전선(United Islamic Front)으로 알려진 아프간 북부동맹은 탈레반에 반대하기 위해 96년 말 결성됐다. 북부동맹은 미군이 이슬람정권을 전복시킨 2001년 9월까지 탈레반 정부와 방어 전쟁을 치렀다.

넷째, 미국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으

다. 2020년 2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철수하고 최대 5000명의 탈레반 전투 및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협정에 탈레반과 서명했다. 그 대가로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다섯째, 탈레반은 인신매매와 성노예에 가담했다. 탈레반은 집권하는 동안 강제결혼과 성노예를 이유로 여성을 자주 납치했다.

여섯째, 탈레반은 특정 이유를 위한 목적으로 소년병을 징집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6살부터 세뇌를 시작하고 최대 7년 동안 탈레반 교사 밑에서 종교과목을 계속 공부한다"고 말했다.

일곱째, 탈레반은 인권을 짓밟는 역사가 있다. 90년대에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사회적 통제는 '악덕과 덕'의 경찰로 알려진 도덕공무원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됐다. 이들 관리는 지역사회를 순찰하면서 복장과 품행, 수염 길이, 남성의 금요기도 참석 여부,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 사용과 관련해 탈레반이 규정한 사회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여덟째, 탈레반은 소녀와 여성을 억압한 역사가 있다. 90년대에 탈레반이 집권하자 여자대학을 폐쇄하고 거의 모든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도록 했다. 탈레반은 여성의 의료 접근을 제한했고 복장 규정을 잔인하게 시행했으며 여성이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아홉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역사가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크리스천은 탈레반이 어떻게 신자들을 장악하며, 향후 어떻게 탈레반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알려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두려움을 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15살의 독신 소녀가 있으면 탈레반 군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포스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딸을 그들에게서 빼앗겨 탈레반과 강제로 결혼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뇌를 위해 종교 학교인 마드라사로 보내질 것입니다. 부모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한 남성은 자신의 집이 현재 탈레반의 소유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예품을 만드는 단순한 사람이고 그의 모든 재산은 집에 있습니다. 탈레반은 기독교인의 소유와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의 모든 여성을 빼앗을 것입니다."

"진보언론들, 탈레반과 이슬람 연관성 지우기 중"

미국 남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Jr.) 박사가 탈레반 배후의 '이슬람 신학' 지우기에 나선 진보 언론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몰러 박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탈레반과, 무장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및 그 연계 조직 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증가에 대해 다뤘다.

그는 미국의 일부 매체들이 탈레반을 설명하는 데 "아이시스(ISIS)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들이 '이슬람' 또는 '이슬람교'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레반이 세속적 군대가 아닌 현실에 대해 주류 언론이 얼마나 무관심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가상의 침묵을 듣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들은 이슬람 전사들로 구성된 지하디스트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좌파의 신화에서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며 "종교적 세계관의 충돌에서처럼, 이슬람에 대한 언급은 위장된 인종차별이거나,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불감증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칠 시간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행하신 고별설교 후 하나님께 올린 긴 기도의 일부이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을까? 예수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제자들의 하나는 4번이나 반복된 기도의 중심주제였으며, 이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셨다.

현대교회는 본질과 본연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교인들이 떠나거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그리 대수로운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마치 세 포분열을 통해 몸이 자라듯 그런 방식의 분열의 과정을 통해 지상교회가 확장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불감증을 지니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교회역사가 처음부터 불일치와 분열의 길을 걸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되신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우려하신바 지상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최초 예루살렘교회는 물론 그 후에 복음전파로 세워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한 예로 고린도교회는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았다. 이런 내적갈등은 성도들의 영적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향한 복음전파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교회는 역사를 거듭할수록 ‘하나됨’의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왔다. 현재 지상교회는 상당히 많이 분열되어있다. 각자 나름의 성경해석과 전통에 근거하여 교리와 체제를 세우며 독립된 길을 걷고 있다. 자신들의 역사와 경험을 옳은 것이라 신념이 강할수록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예수께서 올린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배타적인 태도를 지닌 일부 중심으로 탄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됨에 대해 불감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하나 됨?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각성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이 결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세교회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교’와 ‘신교’로 불리는 역사적 결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다. 로마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분리되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신교가 구교를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교가 성경적 교회로의 환원을 꿈꾸며 요구하던 종교개혁자들의 소원을 거부함으로써 신교 출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약 5세기가 흘렀다. 구교는 아직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톨릭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의 교회를 중시하여왔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톨릭교회 안과 밖으로 인간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 성경해석에 충실한 신학자들부터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성을 추구하는 신학자

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적 교회론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가 행한 고별설교의 핵심이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를 가르친바 있다. 이 사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진리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신앙공동체를 교회라 부를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이다. 결코 인간이 구상한 작품이 아니다.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단지 지상교회는 예정되어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영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보이는 교회-제도적 교회’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마13장) 등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됨’이란 교회의 거룩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노력이 아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여 존재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달랐기 때문이다. 통일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열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신교가 유럽전역으로 확장되면서 세워진 개신교회는 각 나라의 정치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욱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겨났다. 각 교회마다 자신들이 가장 바르게 하고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현재 제도 바르게 한다는 신념 뒤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흑백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교회는 서구의 개신교의 역사로부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수용하였을 때 그들이 속하였던 교파와 교단이 추구하는 교리와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신념도 전달받았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초기에는 이런 차이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난 신학논쟁의 결과 각 교단이 연속적인 분열을 경험하였다. 그 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령주의 운동, 자유주의신학, 그리고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뒤 한국개신교는 더욱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각자만의 분명한 길을 걸어왔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1)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27) - 교회의 분열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교회분열은 구성원 사이 갈등이 결정적 교회공동체 조직과 결속 다지되 성도의 십자가복음 안에 거함 전제돼야

들까지 신학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겉으로는 예수께서 그토록 소원하였던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연합체이다. 영적 또는 신학적 통일성은 포기한지 오래다. 단지 자율적 정권이 커짐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상에 대해서는 큰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 결과 로마가톨릭교회가 중시하는 것은 구조 안에서 공존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개신교는 겉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구교와 달리 외부적 분열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 듯하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분열을 정당화한 것으로 여기는 개신교를 향해 예수께서 원하셨던 ‘하나됨’을 어기고 있다며 조소하고 있다.

복지단체나 사교클럽이 아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없이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훈훈한 교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공동체라 불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소원하셨던 교회의 일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그들 사이의 돈독한 영적관계를 전제한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한 대에 참여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지상교회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잠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로마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종식된 후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교회를 정의한 도나투스파 분리주의자들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은 소수의 배반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무리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형성되었다.

어거스틴의 근본사상은 교회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

각자의 길

어거스틴의 초대교회 교회론이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변질되었다. 가톨릭교회가 가르친 교회의 보편성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권위가 인간으로 구성된 교회 자체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의 선포가 참 교회의 표지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교회역사를 밝게 된 개신교의 지속적인 분열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각 교파와 교단의 교리와 교회체도가 다른 것을 복음 이해의 다양성이라 포괄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 됨에 대한 불감증은 극히 정상적인 것인 가?

개혁자들은 출발부터 “바르게 한다!”라는 정신을 중시하였다. 초기에 생겨난 개신교 계파들은 한 마음으로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였지만 이들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를 향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초기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 하더니 점점 서로를 향한 비판이 날카로워졌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럽 및 미국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역사를 통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교리 또는 체제의 차이라는 명목상의 이유를 말하지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인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교단 또는 교회가 서로 갈라질 때 하디한 경우 주도권을 다투고 같은 정치적 이유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이해관계로 촉발된 집단경쟁의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한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의 소원인 동시에 지상교회를 향한 명령이다. 각 교회공동체마다 조직을 강화하고 결속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각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성도는 모인 단체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 나아가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굳이 각자 강조점을 달리하는 다른 교파와 교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 특정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양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with 6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Columns include: 감리회, 남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8)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레일교회)



4.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체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멸시하는 죄에 빠져 있다. 교회 일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교황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가톨릭교회(보편교회)란 이름을 오용해왔다. 종교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이 기독교 세계 전역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고약한 죄이다. 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문제이다.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들과의 교제도 만약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법적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를 소원하게

워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의 말씀이 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일은 나의 사업이요 인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나의 목적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간절히 권한다. 가장 필수적인 진리에 대해서만 마음을 합하자.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들은 서로 용납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복잡한 신조들은 만들지 말자. 이를 위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면한다.

1)성도들과 특히 전체 교회가 관련하여 논쟁을 벌여온 양분된 견해에 대해서는 어느 편에도 큰 강조를 두지 말자.

2)자유지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 등과 같이 결국

다. 이것은 그의 알미니안적 신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잔재라고 볼 수 있다.

3)실체도 없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논쟁들에 큰 강조를 두지 말자.

4)성경이 우리에게 전파된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낯선 신앙관에 대해 너무 강한 주장을 하지 말자.

5)좀 더 순수하고 분별 있던 시대의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신앙관에 대해서는 큰 강조를 하지 말자.

6)사도시대 이후 어느 한 세대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반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큰 강조를 두지 말자.

5. 우리가 교회 규율을 적용하

대한 배신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태만과 게으름은 것은 분명하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는 게으름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의무를 도외시해왔고, 꺼려왔다”고 고백한다. 징계는 참으로 수고스럽고 고통스런 일로서 자기부인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이로 인해 우리에게 대해 기분 나빠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와 다른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다가 당했던 것과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징계는 결

‘화평’에 대한 이해는 알미니안적 신학 잔재 보여 자기부인 없으면 하기 어려운 징계 회피는 게으름

만드는 이유는 대개 교회정치의 올바른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소한 것들이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롬12:18). 화평은 경건의 확실한 친구이다. 경건은 언제나 화평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오류와 이단은 화평에 의해 자라나고 또 불화는 이단에 의해 생기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 한 마음과 한 영혼과 한 입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경건을 북돋우고 죄를 경고하며 장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함께 누리며 즐거

철학적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익한 논쟁들에 큰 강조를 두지 말자(필자에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백스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신앙의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백스터의 목양 강조 일념과 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입장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가늠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 데 있어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징계와 같은 공인된 의무를 행하는데 게을리 해왔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되 다만 종이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다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귀중히 여기고 이를 헛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규례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징계는 교회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징계를 행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코 헛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못하겠다고 핑계 댈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갈과 불로 우리의 겸손을 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4:17).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죄이다. 우리가 대낮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는 숨길 수 없다. 이를 덮으려 하면 오히려 우리의 죄와 수치가 커진다. 죄를 저질렀으면 자발적인 고백과 겸손 이외에는 우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이 없다. hyojungyoo2@yahoo.com

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울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찬송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박사 음성 잘 못 읽는다. 그러나 박사 음성이 내 중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울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관용과 타협

여름 방학 동안 가까운 산으로라도 며칠 가족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 그런 시간을 찾지 못했다. 가족휴가 대신 막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떠나기 전에 샌디에고 사는 큰 아들 집에 이박삼일 다녀오기로 했다. 가족이 함께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야구장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아들 집 주변을 걸어 다니려니 건물마다 동성연애를 표현하는 큰 무지개 배너가 걸려있는 것이 유난히도 많이 눈에 띄었다. 샌디에고는 워낙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그 무지개 배너가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교회 입구 앞에도 길게 드리져 있는 무지개 배너가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지난 6월이 “게이 프라이드의 달”이어서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무지개 배너를 다 걸었던 것 같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성연애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 걸려있는 무지개 배너는 또 무엇인가? 만약 그 배너가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아무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배너가 “우리는 여러분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지지합니다”라는 의미였다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게 대한 관용(tolerance)을 넘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어려운 이슈이다. “평등(equality)”을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은 성 정체성을 선택의 자유가 있는 영역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옹호하지 않으면 마치 지성인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간다. 그러나 평등법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도덕성은 참으로 도전 받게 될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나의 행동의 기준도 맞고, 당신의 행동의 기준도 맞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굳이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말자는 매우 근사하게 들리는 관용의 자세이다. 문제는 종교에도 상대주의가 들어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애매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뜻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극단적 크리스천들처럼 불교사원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용납하지는 않는다.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일은 아닌 것이다.

한국에 계신 형부는 총각시절 집사님 직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요즘 가끔씩 교회 밥이 맛있다고 교회에 가신다고 한다. 밥은 맛있는 핑계일 뿐 기독교에 드디어 관심을 가지시나보다 하고 내심 기뻐하였다. 나이가 여든을 넘긴 형부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세례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최근에 Facebook에 올리시는 형부의 글을 보니 친구와 함께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는 등 사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리고 계셨다.

우리 형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닌 타협이 될 것이다. 상대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다.

lpyun@apu.edu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리고 이 에베소서과 받고 있는 에베소서교회도 이렇게 찬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느끼는 감동과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찬송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박사 음성이 내 중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울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울려드리는 찬송 위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성경공부: 수요일 밤 8:00 디너: 평일 저녁 4:00-7:00 Tel. (773)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66	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0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수)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on, MA 01748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6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청순한 젊은 여인이 신문기자가 되겠다는 푸른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갑니다. 신문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 있게 연락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

던 어느 날 한 유명한 패션 잡지사로부터 인터뷰에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일단 편집장 보조비서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이 여인에게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들, 명품들로 치장한 고풍한 삶, 그리고 독특한 행동 방식과 생존경쟁은 너무나 이상했고, 때론 사치스러워 보여 친구들에게 그들의 삶을 비웃곤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까탈스러운

보스의 요구에 적응하며 직장에서의 생존 경쟁하는 삶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자신도 자신이 비웃었던 사람들과 비슷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 생존하며 명품족으로 변화되어버린 이 여인은 순수한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가난한 남자친구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남자친구로부터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이제는 귀찮게 들리게 됩니다. 패션계의 사람들이 꿈꾸며 가고 싶은 파리 패션쇼에 자신의 선임 비서관 대신 보스와 함께 참석하여 생존을 위한 보스의 권력 싸움을 지켜보며 환멸을 느낍니다. 아울러 이미 변질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난한 남자친구의 충고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현재 자신이 성취하

여 이룩하여 놓고, 이룩하여가고 있는 삶을 청산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권력을 얻고 명품으로 자신을 채우려면 악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명품으로 치장을 하였다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좇아 세상의 부귀와 명성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 혹시 '악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권력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권력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명예를 얻으려는 갈망이 있을 때 명예는 온전한 기쁨을 주

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품으로 나를 감싸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명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말하고, 비추어주고 있는 성공, 기쁨, 행복의 모습이 결단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후5:6). yosupbois@hotmail.com

본사 방문

박성현·장현경 박사부부

말씀과 간증집회를 위해 LA 체류 중인 박성현 교수와 장현경 박사가 지난 7월 29일 본사를 방문했다. 박성현 교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이스라엘 고고학 및 인문학 학사,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고고근동문화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 근동어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고든콘웰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내인 장현경 박사 역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MIT 박사후과정을 거쳐 현재 보스턴 소재 제약회사 책임연구원으로 헌팅턴병과 파킨슨병의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은 다섯 달란트의 소유자인 듯 한데 여전히 '한 달란트를 받아 누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외치며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보스턴에서 노숙인을 돌보는 사역과 쉼터 사역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본사를 방문한 박교수 부부의 삶과 신앙,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먼저 그가 작년까지 학장을 역임했던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의 보스턴 캠퍼스의 특징을 묻자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보스턴캠퍼스는 미국 도심 사역의 선구자이며 가장 다양한 다문화적 신학대학원 캠퍼스'라고 소개한다. 1976년 마틴루터 킹 목사가 청소년사역자(Youth Minister)로 섬겼던 Twelfth Baptist Church에서 Center for Urban Ministerial Education(CUME)이라는 이름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 보스턴캠퍼스의 예레미야 29장 7절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토대로, 미

지난해 6월 박 교수는 더 심도 있게 '평안'을 추구하고자 학장직을 내려놓았다. 다양한 언어권의 사역자 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고든콘웰은 지난 2020년, 라티노-글로벌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됐고, 현재 그 안에서 일반신학석사과정(MATS)이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는데, 박 교수는 현재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도록 산파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특히 이 역할을 자처한 이유는 다문화권 신학생들을 돕는 '멘토'가 부족할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늘 그의 제자들에게

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남미권 출신 교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극소수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주 중에 청소년 건축현장,

섬 위에 잘 세움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민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선교사역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250달러씩 정기적으로 신학생을 후원해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인교회를 가운데 많이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한국교회의 각오와 열심이 이제는 타 이민교회들의 목회자를 세워주는 한인교회의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의 눈에는 이제 박 교수는 다섯 달란트를 가진 모습이지만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의 아픔이 남아있다. 그 아픔들이 지금의 박성현 교수를 만든 초석이 됐고, 그 아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는 "사는 날 동안 쉽 없이 증거 해



이스라엘에서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장현경을 아내로 맞은 것인데, 장 박사는 "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남편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졌지만 생활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컸다"고 회고하며 "그것은 예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훈련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한다.

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박사의 목소리는 양철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삼켜져 그 어느 누구도 제 강의를 알아들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달란트의 삶을 살던 시절의 간절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

미 이민교회 가운데 장자역할 맡은 한인교회, 타 이민교회 도와야

저서 '한 달란트' 수익금 전액은 다민족신학생과 베들레헴바이블칼리지학생 후원

전역의 교회들에게 도심사역의 '예레미야 패러다임'을 제시한 곳이었다. 현재 북미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도심사역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고든콘웰 보스턴캠퍼스의 '예레미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런 도심사역의 중심부에서 박성현 교수는 고든콘웰의 첫 동양인 학장으로서 지난 2020년 6월까지 재직했다. 그의 재임기간동안 보스턴캠퍼스는 재학생 4백여 명 중 84%가 다문화권 출신으로, 신학 강의가 영어는 물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불어로 진행되는 캠퍼스로 한층 더 발전했다. 백인 학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민자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부지런히 개발한 결과였다. 특히 그의 재임기간동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보스턴캠퍼스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이뤄낸 '평안'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대학은 물론이고 신학대학원들마저도 인종-문화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이기에 보스턴캠퍼스가 실천한 '평안'은 큰 의미가 있었다.

게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왔다.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지 않은 이민자 사역자들이 미국의 '성읍'에서 '평안'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책은 그 일을 교수로서 멘토로서 같이 하고자 함이 현재 그의 바램이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사태를 맞아 신학생들이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박 교수는 아내 장현경 박사의 권유로 부부가 함께 '한 달란트'를 출간하게 됐다. 이 책의 판매수익금은 전액 고든콘웰의 중남미권 출신 신학생들과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다민족 신학생들의 상황을 설명한다.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고든콘웰은 중남미권 신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의 2/3를 장학금으로 해결해주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현재 중남미권 출신 신학생들은 거의 모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월 250달러를 지불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한 달란트'를 지난 3월에 출간한 것입니다. 이 의도는 책 반 표지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저희는 한인교회가 다른 곳 이민교회들 가운데 장자역할을 할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인교회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못 이민교회들에 비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먼저 누리게 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못 이민교회를 도울 수 있게 하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

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입을 열었다. "교수라는 사람이 중학교를 자퇴했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교수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끌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셨기에 가능했다"며 그의 이야기는 파라과이 이민자로 살아야했던 청소년 시절로 돌아갔다. 박 교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1976년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 이민자로 살며 당한 수 많은 경제적 역경은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쁨도 가져다주었던 한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박 교수는 자퇴를 하고 야채장사에 나서야 하는 아픔도 주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어린 박성현을 만나주셨다. 후일 복학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때 가업을 위해 또 자퇴서를 내야 했고 아울러 추진 중이던 하버드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그는 연이은 사업의 좌절로 헤어나갈 수 없는 늪에 빠져드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24-25절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유학길에 오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광야'의 훈련을 거치며 두 부부는 배워간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이사야 61:1-3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당시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의 신학생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박성현은 말씀에 순종해 그 계획을 접고 자비량선교사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의 작은 한 달란트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감격을 체험하는데, 뿐만 아니라 후일 하나님은 박성현을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세우시고 또 그에 앞서 박사학위라는 작은 가사를 돕기 위해 포기했던 하버드대학에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다. 이제 고든콘웰의 학장을 지낸 그를 더 이상 한 달란트가 아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라 해야 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한 달란트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온두라스 집회 때 이야기로 대신했다. "중학교를 자퇴한 시절,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 일을 할 때도 한 달란트였고, 팔레스타인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도 늘 한 달란트였는데, 온두라스에 갈 때는 다섯 달란트를 가진 자 같았지요. 이미 하버드대학 출신 박사이며 신학대학원 교수였지요. 다섯 달란트를 맘껏 사용하리라 다짐하고 갔지만 마침 수년의 가뭄 끝에 내리기 시작한 폭우가 한 달 내내 이어져 양철지붕인 강당에서 강

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한 주간 내내 강의시간에 맞춰 비가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비록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됨을 다시 한 번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달란트'로 또 한 달란트를 남기게 해주실 주님 앞에,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날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해가고자 합니다"라고 앞으로의 사역의 모습도 내비친다. 이번 LA 방문을 통해, 남가주사망교회(담임 노창수목사), 남가주주둔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목사) 등에서 말씀과 간증 집회를 인도한 박성현 교수는 다민족 리더들을 키우는 이 일에 한인교회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한 달란트' 책속에 자세한 박 교수의 신앙간증이 수록돼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한 달란트'는 미주주둔노서점(213-382-5400)에서 구입할 수 있고 수익금 전액은 다민족 신학생과 베들레헴 바이블칼리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것은 hyungyungjang@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신 제 15회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총동문회(회장 장규준 목사)가 주최하는 제 15회 총동문회의 밤이 8월 30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0달러(부부동반 50달러).

▲문의: (646)266-0039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개강 부흥회를 갖는다. 일시는 9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이며 8일(수) 오후 8시에는 퀸즈장로교회 일일집회와 함께 한다.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문의: (718)463-7163

패밀리터치 시니어 프로그램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무료 시니어 프로그램이 9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미동부시간) 패밀리터치 강의실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65세 이상으로 내용은 웹핑과 웹다잉.

▲문의: (201)242-4422, 이메일 info@familytouchusa.org



뉴욕영안교회 부흥성회에서 이영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믿음은 꿈이요, 선포요 기도다!”

뉴욕영안교회, 이영환 목사 초청 부흥성회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주최한 이영환 목사 초청 부흥성회가 16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성령이여 임하시어. 믿음은 꿈이요, 선포요 기도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 강사 이영환 목사는 한발제일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며 은퇴한 후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집회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이영환 목사는 “펜데믹으로 전 세계 교회가 힘들다. 특히 한국 교회의 경우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퇴 후 이 목사는 제주도로 주거지를 옮겨 금식원을 준비하고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펜션으로 현재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확장공사를 마치면 300명까지 가능하다고.

이 목사는 “이곳에서는 금식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했다.

일정은 저녁에는 저녁집회와

새벽예배, 오전 세미나로 진행됐다. 담임 김경열 목사는 이번 집회로 “코로나로 닫혀진 교회 문들을 열고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기 원한다”고 말하고 강사를 소개했다.

성회 마지막 날 오전 세미나에서 이영환 목사는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고 “한발교회 설립 후 17년반 동안 부흥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셔서 20년간 행복한 목회를 하고 65세에 은퇴했다”고 말하고 목회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 했다.

이영환 목사는 “성령이 임하면 파위가 생기고 꿈을 주신다. 누구도 복음 앞에 선줄로 생각 마라. 예수 안에서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과 천국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목회는 귀한 사역이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양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목회)원리를 깨닫고 누리려면 믿음, 자유, 평안, 기쁨, 감사가 있어야 한다. 말씀의 본질이 나를 장악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중국동포 우흥국 씨 별세

심장판막수술 후 뉴욕나눔하우스 거주

뉴욕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거주하던 조선동포 우흥국 씨(사진)가 지난 8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55세.

우 씨는 지난 6월 27일 엘름허스트 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 후 갈 데가 없어 소실위커를 통해 나눔하우스에 입실해 거주해왔다.

우씨는 입실 전 심장판막수술과 심장박동기 부착, 스탠트 등 심장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11일 오전 5시경 호흡곤란으로 뉴욕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 중 소천했다. 우흥국 씨는 중국 연변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7년 전 미국에 왔으며, 나눔하우스에 입실 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눔하우스 프로그램



우흥국씨

에서 성경 읽기를 기뻐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몸이 회복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바 있다.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는 “이번 고인의 장례는 축제 장례식이 될 것이다. 그의 장례를 위해 도움을 주실 분이 나 장의사는 연락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8)683-8884

정체성 확립...다음세대에 비전 제시

미기총제 22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이대우 목사 선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제 22회 정기총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필라델피아 몽고메리장로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대의원으로서 증경회장, 각 지역교협회장, 증경회장, 각 교단장과 증경회장, 공인된 선교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준비위원장 이대우 목사(필라한빛성결교회교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22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대우 목사는 필라 한빛성결교회 담임목사로 필라교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속교단인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 2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이다. 이 목사는 3가지 취임 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미기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세대에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미주한인교회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미주내 각 교단과 교협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역 협력과 화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 미주한인교회는 지금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으므로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 제시는 중요하다.

둘째, 성결교 목사담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성결운동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목회자세미나와 영적각성 연합집회를 통해 성결운동을 진행하며, 모범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을 표창하겠다.

셋째, 한국교회와 미주정통교단들과의 교류에 힘쓰겠다. 교류를 통해 미기총의 위상을 새롭게 하며, 미자립교회와 해외선교사를 후원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또 미주 및 한민족 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

정기총회는 7시30분 개회예배에 앞서 오후 4시에 21회기 임원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준비위원장 이대우 목사 인도로 몽고메리장로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기도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성경봉독 총무 샘신 목사, 특별찬양 필리카메라타 선교합창단, 설교 민승기 목사, 성찬식 집례 증경회장 장석진 목사, 중보기도, 환영사 필라교협회장 박정호 목사, 축사 심평중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이주향 회장(미동북부한인회), 황사훈 회장(필라한인회), 윤석형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송태섭 목사(한교연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임원 및 장로 연석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9.11기도' 선포

21일 뉴욕교협 임원 및 장로 연석 간담회 가져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할렐루아복음화대회를 앞두고 '9.11기도'를 선포했다.

교협은 지난 21일 교협회관에서 임원 및 장로 연석 간담회를 갖고 할렐루아대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는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사회로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송운섭 장로가 대표 기도했으며, 회장 문석호 목사가 빌립보서 1:3-11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교협은 '9.11기도' 제목으로 긴급 기도를 선포했다.

'9.11기도'는 9월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밤 9시에 5분기도하는 것이다. 또 하루 앞서 10일에 열리는 목회자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9.11은 긴급구조 기도”라며 “많은 교회들의 참여와 협력 가

운데 뉴욕교계와 교회들의 선교부흥과 영성회복을 위해 긴급구조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5분기도 동참을 호소했다.

2021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는 9월 11일(토) 오후 7시 30분, 12일(주일) 오후 5시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강사인 양창근 파라과이 선교사가 인도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10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대만교회(김진 목사)에서 열린다.

또 차량을 운행한다. 토요일과 주일 집회 시작 1시간과 30분 전에 한양마트, 공영주차장, 베이스айд 삼원각에서 출발한다.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계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임원들. 왼쪽부터 부회장 이만호 목사, 회장 안창의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회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뉴욕목사회 50주년을 앞두고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이 창립됐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은 8월 19일 오전 베이스айд 소재 거승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를 선출했다. 창립총회에는 창립준비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석 6명, 위임 2명 등 8명의 증경회장들이 참석했다.

정기총회를 통해 증경회장들은 최근 어려운 목사회를 위해 중재역할을 하기로 하고, 회장 자이자 회장인 안창의 목사가 회장 김진화 목사를 만나 대화하고 조언하기로 했다.

안 목사는 “평생 동안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좋

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또 뉴욕교계의 최대 잔치인 할렐루아복음화대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은 최근 목사회의 혼란 가운데 그 불똥이 증경회장들에게 튀어 시작된 셈이다.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는 지난 임신행위원회 회의에서 제명 건의 중심에 있다. 이에 관련해 정순원 목사는 법규위원장에서 해임됐으며, 한재홍 목사는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회의진행방해자징계위원회의 조사에 소명해야 하며 불응시 49회기 임명직을 해임한다는 목사회의 공문을 받은 상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 항공대학 캠퍼스 오픈

달라스에...US Aviation Academy와 파트너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달라스에 항공대학 캠퍼스를 오픈했다.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 받아 텍사스 주 달라스에 항공 조종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과정, ESL 과정을 오픈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분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과정은 ESL, 항공영어과정, 항공조종사 면장과정과 항공정비사 면장과정이며 동시에 항공학사 학위와 MBA 항공안전, 보안 석사학위, 항공관련 Ph.D. 학위도 취득할 수 있으며 항공 조종사, 정비사 훈련과정은 파트너인 US Aviation Academy(Denton, TX)과 하게 된다. 달라스 북부 덴튼에 위치해 있는 US Aviation Academy는 충분히 독립된 기숙사와 훈련용 비행기 120 여

(한교총대표회장), 특별찬양 필리카메라타 선교합창단, 광고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 축도 초대회장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 거주자는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날 중보기도 시간에는 5개 기도제목으로 5명의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미주한인교회들의 영적 각서요가 교회부흥과 미주동포사회의 안전과 경제를 위하여(위싱턴교협증경회장 김재학 목사) △각 지역 교협과 목사회, 각 선교단체의 영성, 화합, 단결, 사업을 위하여(한기부필라지회방장두만 목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 한국교회의 사명, 북한 변화와 탈북자들, 핵무기 해결,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아틀란타교협 증경회장 장석진 목사) △미국의 동성결혼 문제, 낙태, 인종차별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민개혁,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하여(자마 전 대표 김순영 목사) △세계의 코로나 퇴치, 테러, 인종갈등, 세계평화, 선교사들의 이슬람권 및 미전도종족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웨이스 선교회장 전희수 목사).

둘째 날인 24일에는 정기총회 후 이대우 대표회장 취임예배가 진행됐다.

민승기 목사 인도로 진행된 취임예배에서 이대우 목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사 40:27-31)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에 앞서 뉴저지남성 목사합창단의 특별찬양했으며 황의준 목사(증경회장)의 인도로 이취임식을 진행하고 임형태 목사(증경회장)가 기도했다.

축사는 황준석 목사(미남침례회 한인총회 증경총회장), 고택원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박동배 목사(세계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황하균 목사(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가 하고 최낙식 목사(미기총 증경회장)가 권면했다.

감사패와 공로패와 취임패 등이 증정됐으며, 전영현 목사(미기총 증경회장)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오후에는 랭커스터 ‘에스터’ 성극관람을 하고 저녁에는 교협, 교단장, 세기총, 한교연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시뮬레이션, 교육과 실습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종사 면장과정(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s, FAA)은 10-12개월이 소요되며 항공 조종교관 과정, FAA 상업용 면장 취득 후 조종교관자격과정(2-3개월 취득가능) 비행조종 교관으로 취업해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이 가능하며 항공 정비사는 FAA 자격증 취득 후 유료 인턴십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면 본교 항공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고 학사과정을 하는 동안 상업용 조종사 면장 혹은 정비사 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메일은 usa@midwest.edu, 전화 (636)327-464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SG선교회 설립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3년 1월 과테말라 초등학교 개교 SG선교회 설립감사예배, 선교회 목적 밝혀

SG선교회(Serve and Give미션, 대표 박성민 목사) 설립감사예배가 21일 정오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박성민 목사는 "이제까지 함께한 예배에 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레 되셔서 남은 생애가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SG선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나라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천국비전 주셨다"고 말했다.

승광철 목사(사무처장) 찬양 인도와 최장식 목사(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회장)가 '예수님의 선교'(눅10: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오위영 목사가 특송했으며 박희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승광철 사무처장이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과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와 안티구아 지역에서 실시했던 비전트립 보고를 하고 단 도슨 박사(아주사피서픽신학교 교수), 흥경옥 권사(베델한인교회)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박희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며 미래의 희망은 어린이들"이라는 모토로 시작한 SG선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오는 2023년 1월 개교를 목표로 과테말라에 기독교초등학교를 설립해 미래의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어린이들을 길러내게 된다. kindergarten와 1학년 두 학년으로 각 학년 1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며 10명중에 1명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학생모집 대상은 과테말라의 중산층 가정들 중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부모의 자녀들이다.

사역목표는 과테말라교육부의 커리큘럼과 함께 언어와 인문학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과테말라의 미래 기독교 교육자, 시인, 철학자, 소설가, 미래학자,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등을 길러내는 것이다.

▲문의: (818)331-5478, (661)618-9392

(박준호 기자)

음악 통해 아버지 은혜 나눈다

트루위시퍼스 클래식 찬양콘서트 성료

트루위시퍼스(대표 추길호 목사) 클래식 찬양콘서트가 18일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열렸다.

추길호 목사는 "샌프란시스코, 헤이워드, 더블린, 산호세, 베이커스필드, 빅토빌,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이곳 LA까지 오게 됐다. 트루위시퍼스는 700만 디아스포라 6000개 이민교회 예배부흥을 위해 결성됐다"며 "그동안 17개국 280도시를 방문했으며 해마다 여름철 대륙횡단 투어를 해왔다"고 말했다.

추 목사는 "1년반 전 코로나19로 침체되었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기도하면서 받

은 단어는 '위로'라며 "변이바이러스로 집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찬양을 통해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게 된다. 12월까지 집회는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음악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 기도, 추길호 목사가 트루위시퍼스 소개, 김하나 자매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Por Una Cabeza', 'Dancing Doll',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온맘다해', '침자가를 질 수 있나' 등을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갈보리민음교회에서 찬양클래식공연에서 트루위시퍼스 멤버들이 연주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주관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핵심정책' 강연도

남가주한국예비역군인회 대한민국 건국73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행사가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김희창 목사) 주관으로 지난 8월 14일 11시 말씀새로운교회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 트럼프필승한인팀총회장,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원로목사회, 국민의힘당 LA지회,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등의 협력으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세계선교

협의회(KWMC) 공동의장인 김경일 목사의 기도, 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인수 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최희량 목사, 그레이스송 회장, 김희창 목사 등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핵심정책' 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했다.

또 남가주원로목사회와 성광회 회장인 신원철 목사 등이 축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대한민국 건국 기념행사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우리 모습 되돌아보는 계기되길"

이승만기념사업회, 광복76주년 및 건국73주년 기념행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최희량 목사)는 지난 15일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 기념행사를 JJ그랜드호텔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열었다.

이번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 기념식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서부지회(회장 김재권), 자유민주통일미주동포연합(회장 임태량)이 주관하고 미국국토방위군 이글사단(사단장 임기수)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포사회의 단합과 조국 한반도의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피땀 흘려 쟁취한 건국절에 애국애족의 결단을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최희량 목사는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을 맞아 우리 광복절을 모르는 한인들은 없

지만 건국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며 "해방은 주어진 것이었지만 건국절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피와 목숨을 바친 희생의 고통 속에 얻어낸 결과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사회인가. 비약적 산업화에 정치적 민주화까지 이뤄냈다는 성취감도 일시적 자부심이었다. 만연한 포퓰리즘에 진흙 밭 싸움을 일삼는 대선 국면의 정치를 비롯 극단적 사회 분열상부터 정상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발목잡기에 역눌린 경제는 소득 3만 달러에서 장기침체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숙수무책의 북한 핵과 미사일을 보면 안보문제도 심각한데, 외교에서도 고립 위기가 심상치 않다. 광복 76주년 및 건국 73주년을 맞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참가신청 9월 14일 마감

GBC미주복음방송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개최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이하 GBC)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Gospel Band Contest)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찬양팀과 밴드가 함께 위축됐던 오랜 기간을 마감해가는 시점에 GBC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컬 밴드 찬양팀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3인 이상의 크리스천 밴드로서 미국 내 거주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회 찬양팀이나 연합 찬양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 접수는 9월 14일까지이며 예선은 9월 29일(수) 온라인 영상으로 전문 심사위원과 유튜브를 통한 일반인 심사가 이뤄진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전문 사역자의 멘토링 워크숍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10월 27일(수) LA에 위치한 총현선교회회당에서 무대공연을 갖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상을 비롯 우수상, 특별상이 선정되며 총상금 1만 4000달러를 수여한다. 대상과

우수상 3팀에게는 상금과 뮤직비디오 및 음원제작, 그리고 본선 입상자에게는 GBC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및 각종 행사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미주복음방송의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gbc.com을 참조하면 된다.

▲참가 문의: (714)484-1190 (박준호 기자)

말씀으로 무장,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광복76주년 기념 성령애국집회 개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후호 목사) 주최 제76회 광복절 기념식 및 성령애국집회가 지난 15일 오펜지카운티 애나하임 비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후호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통성기도로 시작된 애국집회 예배는 사회에 조현영 목사(큰빛교회), 기도예사(한민감사교회), 축도예사(이우호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심명구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이 세상과의 영

서부교계 게시판

주님의영광교회 성정체성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정체성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성정체성 세미나를 27일(금) 오후 7시30분, 28일(토) 오전 9시30분에 개최한다. 대상은 3-5학년 어린이들이며 강사로는 피터정 목사(가이딩라이트프로젝트교회), 세라김 사모(TVNext 대표), 애나박 전도사(TVNext 교육디렉터).

▲문의: (323)401-2032

한인가정상담소 38회 연례기금 모금행사

KFAM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염)가 9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 '제 38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LA 자연사박물관에서 '라이즈 투게더(Rise Together)'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문의: (213)235-4848

미디어담당 목회자 청빙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풀타임(또는 하프타임) 목사 및 전도사를 찾고 있다. 모집 분야는 미디어담당 목사, 전도사 1명이며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도 가능하다. 미디어에 열정과 경험 있는 목회자, 또 찬양인도 가능한 목회자를 우대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받으며 서류마감은 9월 10일(금)까지다.

▲문의: jscoffice01@gmail.com, (310)325-4020

청년부담당 교역자 청빙

총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는 청년부를 담당할 교역자(하프타임)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가입되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규 신학대학원(M.Div.) 재학 혹은 졸업자(전도사, 목사), 개혁주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청년부사역 유경험자 우대,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문제가 없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가족사진, 신앙고백서(개인간증, 목회비전), 학위증명서(전도사는 재학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2부다. 서류는 이메일(churchchoong-hyun@gmail.com)로 접수해야하며 파일은 워드와 PDF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9월 3일(금).

▲문의: (818) 549-9191

중고등부 교역자 청빙

타코마새생명교회(담임 임영희 목사)가 중고등부(Youth 풀타임 및 하프타임) 교역자를 찾고 있다. △ 자격요건은 중고등부 사역에 열정이 있는 정규 신학대학원(신학관련 석사이상) 졸업 및 졸업 예정자, 영어(Fluent)와 한국어(Preferred, not required)가 가능하고 신실히 팀사역에 함께 할 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소명과 비전 포함), 추천서 2통(이전 교회 담임목사 포함 가능), 설교동영상이나 설교파일이다.

▲문의 및 서류접수: tacomanewlife@gmail.com



미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가 월드쉐어 노숙자 지원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마스크 1천장 물 600병 세정제 전달

LA평통, 월드쉐어USA 노숙자사역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 이하 LA평통)가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의 노숙자 지원 활동을 위해 마스크와 물, 세정제를 지원했다.

LA평통은 지난 11일 평통 사무실에서 마스크 1천장 전달식과 함께 김봉현 상임 부회장 주선으로 물 600병을 지원했고, 지난 4일에는 세정제를 전달했다. 이는 LA평통이 매달 '사랑

의 마음 나누기'를 실천하는데, 8월에는 월드쉐어를 통한 노숙자 지원활동에 동참한 것이다. 전달식에는 에드워드구 회장을 위시해 양학봉 수석부회장, 김상현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앞서 에드워드구 회장의 취지 설명과 월드쉐어 활동을 소개했고, 종교분과위원장인 정요한 목사는 "월드쉐어를 한국에서부터 잘 알고 있다"며 월드쉐어 전반적인 활동을 소개했다.

강태광 대표는 "더운 날씨에 노숙자들에게 물품들을 나눠주기 위해 텐트촌을 누비다보면 온몸이 땀에 젖지만 감사한 사역입니다.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노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자들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노숙자 텐트촌 방문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쉐어USA는 매주 노숙자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월 2회 다운타운 노숙자텐트촌을 찾아 음식과 물, 화장지,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기사제공: 월드쉐어)

신학대, 교육부 재정지원 대거 탈락... "일반대 기준 불합리" 반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서 전국 9개 기독교대학 제외

교육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기독교종 합대와 신학대가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 대부분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수성을 가진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수도권 탈락 11개 대학 중 6개가 기독교대학

이번에 기본역량 진단을 신청한 285개 대학 중 52곳이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다. 수도권에서는 탈락 대학 11곳 중 성공회대 총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6곳이 기독교대학이다. 지방에서도 대신대 한일장신대 부산장신대 등이 미션정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탈락한 대학들은 향후 3년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교육부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평균 48억3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다만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정원 축소 등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은 19일 "총신대는 지난 2월 교원양성 기관 역량 진단에서 B등급을 받는 등 학교가 크게 발전했지만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평가기간이 2018년부터였기 때문에 당시 학교와 학생 간 대립 및 총장 구속 건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락했어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못 받는 것 외에는 큰 불이익이 없다. 이번 결과를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산장신대 한세대 협성대 성공회대 등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허원구 부산장신대 총장은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학비 대출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평가에서 84.8점을 받고도 탈락한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세대 커뮤니케이션팀장은 "가결과이건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이의제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준비 중"이라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해 교육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대와 같은 잣대로는 볼리

기독교대학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인데, 규모가 큰 일반대학과 경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학대는 종교 관련 학과 위주로 개설하다 보니 학과 수가 적고, 학생 수도 그만큼 적어 수치적인 면에서 열세다.

이재서 총장은 "기독교대학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기 때문에 교과과정이나 커리큘럼 운영이 일반대학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의 13가지 평가 항목은 모두 일반대학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성대 관계자는 "신학대나 신학과가 있는 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등이 반영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회장인 권용근 대구영남신대 총장은 "모든 대학에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했다. 이는 해비급과 라이트급을 한 링에 올리는 것과 같다"며 "사관학교나 카이스트처럼 특성화된 대학은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듯 종교계 학교도 특별법을 만들어 평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성공회대, 성신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우계대, 케이씨대, 영서대, 한세대, 협성대	기독교대한성경대학교,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대구·경북·강원권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부산·울산·경남권	가야대, 부산장신대
전라·제주권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이에 대해 교육부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과거에 일반재정지원은 신학대는 참여도 못했는데 이번엔 참여의 문을 열었다"면서 "평가는 신학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했다. 이를 감안해서 각 대학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이런 약조건 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독교대학도 있다. 서울신대 백석대 성결대 등은 이번에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그중 서울신대는 학생 수가 3000명에 못 미치지만 다른 대형 종합대학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길용 서울신대 교수(전 기획처장)는 "서울신대는 지난해 3월부터 교원 14명과 직원 10명으로 팀을 꾸리고 준비를 시작했다. 매주 모여서 학교 현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학가에선 대학역량 진단을 '규모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상대적으로 기독교대학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도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무너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의 존립이유인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강제로 제한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며 "한국교회의 정중단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에 "국민 알권리 침해" 반발

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회 개정 반대 성명 발표

기독교 단체인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전 의원)와 복음언론회(임시 회장 김관상 전 YTN 보도국장)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8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제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비롯 복음적인 법률사역을 취지로, 법조계 인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복음언론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입각해 복음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전·현직 언론인 모임으로, 연내 창립을 준비 중이다.

공동대표는 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남녀 위계적인 직분 제도와 교회 헌법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학을 전공해도 차별적 직위와 처우를 받는다"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 여전히 있는가 하면 여성 사역자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부당해고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또 2000여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거부장적으로 해석한 탓에 성 역할 분업 강조, 성비하 등이 담긴 성차별적 설교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기독교사학 존립기반 무너뜨리는 법안"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미션네트워크 규탄 성명 발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운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2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임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사학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미션네트워크는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은

"기울어진 교단총회권력, 청년·여성과도 나뉘어"

기독교단체들 9월 총회시즌 앞두고 남성·목사 편중해소 제안

중앙년·남성·목사에 기울어진 한국교회 교단총회의 권력을 청년·여성·평신도에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 총대 할당제, 세대별 총대 쿼터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19일 서울 중구 새길교회에서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2021

교단총회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태 사랑누리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는 '성장'을 위해 자본주의식 변형 복음 아래에 들어가 스스로 포로가 됐다. 코로나 사태로 개신교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까지 찍히게 된 지금, 교회는 변해야만 살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강호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교연, 연합기관 통합추진위 구성

예장대신대, 기하성(순복음), 예장합동연대 신규회원가입 심의마쳐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교계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논의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위원장 권태진 목사)를 조직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태섭 대표회장 등 한교연 임원진은 이날 통추위 위원으로 상임회장 원종문 김효중 김학필 목

사를 비롯해 서기 김병근 목사를 선임했다.

한교연은 통추위 위원장에 직전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를 선임한 바 있으나 나머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번 상임회장 3인과 서기를 포함해 5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대(총회장 조성훈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총회장 한호성 목사), 예장합동연대(총회장 강종태 목사) 총회에 대한 신규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가입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 교단 인준을 위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개최 건은 송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청원 시작 20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정중숙(경기 용인병)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6일 오후 1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27일 청원을 시작한 지 20일 만이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이 모씨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보호해줘 동성애 커플 등을 법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크다"며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우면

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는 17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반넷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의 실체를 숨긴 채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을 법칙"이라며 "주요 언론도 이에 편승해 사실을 호도했고 마치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러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

"동성결합 법적가족 인정" 국민 63% 반대

건전협, 한국갤럽에 설문 의뢰

국민 10명 중 6명은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절반 이상 이 반대했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62.8%였다. 찬성은 반대 의견의 절반 수준인 29.2%에 불과했다.

김상윤 건전협 대표는 22일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국민 다수는 법적으로 동성 결함을 인정해 주려는 시도, 전통적 가정 개념을 허물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건전협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령과 집단에 따라 동성결합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견해차를 보였다.

기혼집단과 전업주부는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여성, 미혼집단,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에서는 동성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간 결합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 의견이 50.5%로 찬성 의견(40.2%)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6.1%)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34.0%는 '찬성', 9.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는 대구·경북 거주자와 기혼, 전업주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개정안 반대 의견은 남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

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0%가 '해야 한다'는 긍정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의 긍정 답변이 높았다. 기혼집단과 사무관리 종사자도 상대적으로 긍정 입장이 높게 나왔다. 반면 18-29세 연령층과 미혼, 학생 집단에선 '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서선교 25년 월간 '선교터임즈' 300호 발간

선교 월간지 선교터임즈는 19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300호 발간을 기념하는 예배와 포럼을 진행했다.

기념예배에선 KWMA 대표회장인 주승중 중앙장로교회 목사가 '나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 유'(단1: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 목사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예배 후엔 '선교터임즈 300호 기념을 중심으로 본 문서선교'와 '문서선교의 상황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주제로 각각 포럼과 좌담회를 가졌다.

국민 53% "AI 등 과학발전이 종교 위협 않을 것"

목회데이터연구소, 예장통합 설문 분석

기독교인 60% 이상이 '한국교회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선 기독교인 65%가 반대해 종교인 중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지난 6월(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과 지난해 9월(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분을 중점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두 설문조사는 각각 일반 국민 1000명과 개신교인 및 목회자 18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국민 절반 이상이 AI 종교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기술 등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 연구소는 주목했다. '과학 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지난 6월(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과 지난해 9월(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분을 중점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두 설문조사는 각각 일반 국민 1000명과 개신교인 및 목회자 18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교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기술 등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 연구소는 주목했다. '과학 발

4차 산업혁명에 관심, AI 설교엔 거부감 한국교회 예배에 활용할 방안 마련해야

전지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는 의견에 응답자 53%가 반대했고 21%는 찬성, 나머지가 모른다고 답했다. 개신교인은 50%가 반대했고 31%가 찬성했다.

연구소는 "과학 발전이 극대화되는 시대에서도 다수가

심어주셨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갈증이 컸다. 개신교인 71%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목회자의 경우 대



부분(83%)이 목회 활동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반면 개신교인 61%는 '한국교회가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대응한다'고 한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연구소는 "교회 지도자들은 과학 기술을 활용한 예배 방안이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에게 AI 설교·설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결과 전체적으로 '찬성'이 30%, '반대'가 50%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개신교인이 AI 설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컸다. 응답자 65%가 반대하고 20%만이 찬성했다. 반면 불교도는 41%가 AI 설법에 찬성했고 35%가 반대해 찬성률이 더 높았다.

mission 선교의 창 (17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케노시스 (KENOSIS) 영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비움의 철학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뜻대로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배우고 따르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본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회중예배와 소그룹 모임 등에 참여한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케노시스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러운 물이 담긴 컵에는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소용이 없다. 혼탁하며 흘러넘칠 뿐이다.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본질에서 이탈하면 그릇된 결과를 유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과업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 케노시스 영성, 이것이야말로 목회와 선교의 출발점이다.

1. 케노시스(Kenosis) 의미

케노시스 사상은 성육신(成肉身) 이론의 핵심이다. 케노시스(Kenosis)란 “비움, 소모”를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비움이란 헬라어 “케노우(κενω)”에서 나왔다. 그 뜻은 “비우다, 함을 박탈하다”라는 것이다. 케노시스(kenosis)란 주로 예수님의 “신성포기, 자기 비움”

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다. 케노시스의 원형은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빌2:7)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no reputation, himself nothing)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한자만 보아도 “비움”이 들어 있다. 리얼리티(Reality)한 표현을 시도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을 토대로 한 인테리어(Interior)는 더 작게 더 간결하게를 모토로 한다. 즉, 비움으로써 여백의미를 보여주는 동양의 미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함과 간결함 그리고 공간을

같이 되셨다”(빌2:7-8)고 언급했다. 이렇게 케노시스적 화신(化身)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막10:45)로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비움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재였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비하(卑下)는 승귀(昇貴)를 가져왔다(빌2:9-1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비움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2. 비움에 대한 일반원리

공간(空間)이라는 단어의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현대인에게 쾌적함을 제공한다. 속이 빈 대나무피리와 바이올린은 공명(共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릇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어야 한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 베드로의 빈 배, 가나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의 공통점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다. 그러나 뭔가 가득찬 그릇은 새 것을 담을 수 없다. 채웠을 때보다 비었을 때가 더 아름답다. 뻥뻥한 대도시를 벗어나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빈 공간으로 수행할 때를

상상해보라.

3. 비움이 없는 사람들

현대병은 한마디로 가득 채움에서 시작된다. 과욕, 과식, 과로가 대표적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들은 더 높고, 더 많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활화산 같은 욕망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곳에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다.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구슬땀을 흘리며 달려가지만 정작 신기루가 되고 만다.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사회와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녁노을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 한적함, 단순함, 소박함, 겸손함, 전진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판판이기 때문이다(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즐긴다.” 이상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가 한 말이다. 그의 따끔한 충고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고,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고, 희생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쫓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신 길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동네북처럼 얻어맞으며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믿음

한다. 선교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왕국(Kingdom)을 건립하고픈 유혹을 받는다. 그래야 세상의 찬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킹덤이 아닌 자기 킹덤은 심판받을 일이다. 따라서 선교는 어떤 경우이든 자기 깃발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무대 위에 현자임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다.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태도가 답이다. 그런 점에서 1세대의 선교는 당대 금자탑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등받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렇듯 케노시스 영성이 없는 선교는 타락하게 되어있다.

맺음 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니체(Nietzsche)는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초인 사상(Übermensch)을 언급했다. 그것은 “낙타 같은 섬김이요, 사자 같은 용맹함이요, 어린이 같은 단순함”이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낙타 같은 섬김이 있는가? 악과 불의를 향한 사자 같은 용맹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는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우리의 아픈 부문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의 언급은 간디와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굳이 외식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과 우리 자신의 행복 그리고 무한한 열매를 맺기 위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은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케노시스 영성이란 빠기 인생이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또 비우면 영혼이 맑아지게 된다. 그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얼굴은 주님의 영광스런 광채를 드러낼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2:22)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5. 케노시스적 선교

케노시스적 선교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비움을 전제로 한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었다. 자기 심령을 비우지 않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요와 채움심을 경험할 수 없다. 선교는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자기 소모이어야

함, 동심, 비움, 버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다. 인간이 번잡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소유와 존재의 삶을 혼동하게 된다. 결국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채움을 향한 목적지향적인 인생살이는 피곤하고 허망하다. 중국의 철인 장자(莊子)는 허실생백(虛室生白)을 주장했다. 텅 빈 방에 햇빛이 밝게 비치듯 마음을 비우면 밝음이 그 빈 자리를 채운다는 뜻이다.

4. 간디 눈에 비친 기독교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⑩ 버가에서



강태광 목사
(월드체어USA대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교팀은 바보(Paphos)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Perga)로 갑니다. 그들은 제1차 전도여행 때 가는 길 오는 길 2회에 걸쳐 버가를 통과 하였습니다(행13:13, 14:24-25). 갈 때에는 버가에서 선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행14:25).

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바나바부터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버가를 향할 때부터 선교팀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마가의 이탈입니다. 마가는 일행이 버가에 도착할 때 선교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행13:13-14, 15:36-41). 선교여행에 동행하던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약 신학자들이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들을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혹자는 마가가 버가에서

에 맞는 고난과 고통을 목격하고 두려워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현장의 고난을 두려워 마가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높은 산을 넘어 전도여행을 해야 하는 일정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혹자는 선교팀 내부 리더십의 변화가 마가가 선교팀

그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가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이 선교현장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깝게 여기는 모습에 실망한 마가는 바울의 선교팀을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여하간 버가는 선교팀의 변화가 이뤄진 곳입니다. 버가는 바울이 방문했던 소

니다. 버가의 성벽은 BC 3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견고해서 외침을 잘 견디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을 힘입어 버가는 밤빌리아의 주요 토착 성읍으로 자리 잡습니다. 버가는 헬라어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헬레니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버가에는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원형 극장이 있는데 1,400명의 관중석이 있는 대형 극장입니다.

버가의 종교 문화는 그리스와 유사합니다. 버가는 에베소와 함께 아테미 여신을 숭배했던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버가 시가지 외곽 언덕에서 있는 화려한 아테미 신전은 버가가 자랑하는 문화재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와 제의는 고대 그리스와 에베소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아테미 여신의 성격은 에베소와 비스

인 제우스와 사랑을 해서 아테미와 아폴론을 임신합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불탄 헤라의 방해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제우스의 부탁을 받은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델로스 섬에서 아테미와 아폴론을 출산합니다. 아테미는 평생 남자들을 멀리하고 숲에서 사냥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버가에는 또 아고라가 유명했습니다. 아고라는 아테네에서 유명했고, 에베소에서도 유적이 있습니다. 버가의 아고라 규모는 에베소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아시아의 아테네로 인정받았던 에베소와 아고라 규모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버가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가를 출발한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험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Taurus)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약 100마일의 산길도 어려웠지만 여정에 도사리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계곡물의 범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범람하여 큰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험난한 산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강도떼(Bandits)로 악명 높았습니다. 선교팀은 협상준비를 넘어 새로운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chap1207@hotmail.com

바울이 방문했던 소아시아 첫 도시로 로마시대에 가장 번성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마가의 이탈 등 의미 있던 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 가는 산길이 너무 험해서 떠난 것 같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버가 북쪽에 있는 높은 고산지대가 마가가 선교여행을 포기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버가의 북쪽은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마가는 바보(Paphos)섬에서 바울이 채찍

이탈의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엘루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총독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울러 바보 주민들도 다수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 리더가 되자 삼촌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마가는 리더십의 변화에 불만을 품고 되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의 첫 도시입니다. 버가의 역사는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대 해안도시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BC 13세기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디아왕국에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대왕 이후 더욱 번성합니다. 버가의 최고 번성기는 로마시대였다고 함

하고 때로는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수렵의 여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아테미 여신은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아테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중의 하나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티탄족 여신 레토는 사촌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세례요한의 목회사역(눅3:18-20)찬257장

본문에서 누가는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그는 여러 교훈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는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으로 선포하며 개인적 질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회개와 믿음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전파

내용을 미리 보인 것으로 신약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주를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하여 옥에 갇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자들의 본입니다. 진리를 혼탁케 하는 이 시대에 그 본을 따라 순교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화 예수님이 받은 세례(눅3:21-22)찬178장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 받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그는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세례 주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친히 죄인의 반열에 끼여 세례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양이심을 나타내심입니다. 둘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닫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립니다. 예전의 문이 열리고 하늘보좌

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히19:20). 셋째,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란 그의 사역의 겸손과 온유로 구속을 이루실 본임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성자의 사역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겸손한 교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세례 받으심으로 이룬 구속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수 구속의 의미(눅3:21-22)찬204장

그 일은 구속의 어떤 진리를 가르칩니까? 첫째, 구속의 성격-자기 백성을 저지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둘째, 구속자의 정체성-대속자가 되실 그리스도가 성부의 사랑과 독생자의 순종과 성령의 온유와 겸손으로 구속을 이루심을 보입니다. 셋째, 구속의 방법-오직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십니다. 세례식 자체가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

속주는 대신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넷째, 구속의 결과-메시아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은 성부와 연합하여 부자관계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한 영이 됩니다. 구원은 건짐에서 연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이 구속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합니다.

목 예수의 족보(눅3:29-38)찬193장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30세로 언급하며 그의 족보를 살핍니다. 첫째, 이것은 마태의 요셉 중심한 것과 달리 마리아를 중심한 족보입니다. 요셉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마리아도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 성취에 신실하심을 증거하심이고 그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첫 아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은 그의 범죄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 회복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으로 예언하신 구속이 일점일획 틀림없이 성취됨은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 그 족보는 하나님 은혜의 손을 보여줍니다. 절대타락과 절대무력 그리고 절대무자격자일지라도 필요시에 사용하심은 그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금 시험을 이기신 주님(눅4:1-13)찬411장

누가는 과학적 관찰을 통해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구속주로서의 참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40년간 광야의 연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그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첫 아담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대속제물로서의 낙

낙하고 완전한 자격자되심을 이끄심처럼 또 다시 시험에도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나 죄가 없으시다 한 것은(히4:15) 우리의 대속자 되심을 알리면서 또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선포하심입니다. 그의 영원한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립시다.

토 광야에서 받은 시험(1)(눅4:3-4)찬412장

3-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현실의 배고픔을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첫째,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영적 양식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은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게 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언제나 이 원리를 중심해

움직였습니다. 둘째,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권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일반은총도 귀하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시험에 성경을 인용함은 기록된 모든 낱말의 성경말씀이 영감된 사실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2)

III. 종교개혁 시대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종교개혁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예배를 바른 예배로 회복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은 개혁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표현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 그 변질의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 던져 주고자 함직한 메시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한편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문성모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가 중심이 되면서 예배는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는 다시 구별되기 시작했고 권위의 벽은 점점 높아만 갔다. 이제는 설교자의 말 한마디가 구원까지도 좌우하게 되었다. 설교자인 성직자는 회중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자리로 올라갔다. 설교자가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설교자를 섬기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닌 설교자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전락되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갖게 하는 말이다. 결국 설교자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설교에 대한 열망이 예배

1) 개신교 예배와 설교

“예배는 설교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예배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이론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얻은 것과 다시 잃어버린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타락의 주된 원인은 예배에서 말씀의 권위 부분이 회당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장 먼저 내건 슬로건은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주된 중세 교회의 예전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설교를 놓고 회당예배의 전통을 계승하려 한 것이다.

설교란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종교개혁가들의 의도는 말씀의 회복이지 전체 예배를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공히 중요시 여겼던 초기 기독교 교회의 전통에서 빛나던 중세교회의 예배전통에 말씀의 권위를 되돌리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예전에 넣게 된 것이지, 예배를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전을 새롭게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설교를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회복시키다보니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말씀의 권위에 설교자의 권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노진준 목사는 복음적인 예배에 대한 이론을 펼치면서 “설교 자체가 귀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절대화 시키려고 목사가 절대화되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설교철학에 대해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이 아닌, 사제들의 권위가 아닌, 예식을 통한 성례가 아닌,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설교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에 비추어지는 여러 문제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에 대한 열망과 분리되기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두 가지 권면을 생각하며 서술한다.

첫째, 예배에서 설교의 기능을 바로 인식하고 성경을 쓴 원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원론대로 바로 전달하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훈련해야 한다. 설교자들이 오늘날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 말씀을 재해석하다가 자칫 설교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내 복음’으로 바뀌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잘못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예배에서 설교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예배에서 성도들 중 한 사람은 없어도 예배는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받는 유혹은 참 많이 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간/중 (3)

이하루 목사

저의 사역은 윗마를 탈출사역이 아닌, 윗마를로 다시 돌아 가는 분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고 싶을 거예요." "그래? 어렵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잘 살기를 응원할게! 용기 내렴!" "네-에!... 그런데 삼촌... 아니예요!"

그렇게 속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딘지 어둡고 아쉬운 눈빛과 몸짓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전에 인사 온다더니, 그냥 떠났나?' 왠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잘 살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있으려는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삼촌, 저희 조선족 청소년

예상치 못한 윗마를 꽃제비라는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견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대부분 조선족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서 부모님 사람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고 부모님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 정도로 여기곤 했습니다.

아니예요! 윗마에서 왔어요!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삼촌과 숙모가 제일 좋아요~! 저희는 다른 나라로 가요~!"

예상치 못한 윗마를 꽃제비라는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견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던 그 입술과 눈빛, 그 밤이 아무리 깊어져도 밝아지지 않던 그 열굴색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삼촌, 숙모! 저희 며칠 자고 가도 되요?" 하는 것입니다. 조선족 사역을 애써 외면하던 터라 마지막에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다그쳐 묻지 못했을까! 그랬더라면 이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했습니다. 제가 찾던 아이들이었는데 왜 이제야 알게 하시나고,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꽃제비들을 보내셨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요.

며칠 지났을까, 어느 날 밤 "삼촌 숙모! 할 말이 있어요. 시간 되세요?" 하기에 그 날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리고 고아로 자랐다고, 돕는 분을 만나서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고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디로, 무슨 이유로, 누구의 도움으로 떠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찾던 아이들인데 눈치 없어서 잘해 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마음이 미안해졌습니다. "삼촌, 저희 곧 다른 도시로 이사 가요! 삼촌과 숙모가 보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4)



7. 밀알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소중히 여긴다 이단들은 주로 가정과 교회, 직장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때문이다.

백퍼센트 자기 의견이 다 수용될 수 없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절충이 필요하다. 서로 토론과 조정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에 순종해야한다.

1. 토요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세 이상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8. 밀알은 정직하게 일한다 특히 재정적 문제에서 정직하고 투명하며 이성과 관계에서 깨끗해야 한다. 매일 월간지를 통해 모든 재정을 초기부터 공개해왔고 지금까지 이성 문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



9. 밀알은 법과 질서를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다. 허공에다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다.

모험과 도전을 인정해주어야 조직이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하도록 돕고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다양한 공작을 통하여 창의력 개발과 협동심을 키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다. 허공에다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다. 여러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범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제 5절 뉴저지밀알의 매주 사역 현황

하나님나라 복음은 장애인들의 영혼구원과 신앙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 생활에 필요한 학업을 제공하고 그 부모와 가족들의 어려움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한다.

10. 밀알은 결정에 순종한다

뉴저지밀알선교단은 하나님나라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뉴저지 복부에 위치한 본부에서뿐 아니라 중부에서도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찬양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아동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 밀알은 한 곳에 큰 모임을 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 모임을 여러 곳에 하기를 원한다.

토요사랑의 교실을 하는 목적은 장애학생들에게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 영적성장을 돕고 일반 봉사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장애인 부모에게는 부부가 될 수 있고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화요모임을 갖는다. 먼저 1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는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과 서로 친교를 위한 것이다. 식사후 찬양을 20분 정도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소중히 여겨 정직하게 법과 질서 지키며 순종

고 성경말씀 20분 후 중보기도만, 수화찬양반, 장애아동반을 40분 정도하고 마지막에 워십댄스로 마무리하면 9시 끝난다. 매주 40여명 정도가 모이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밀알 선교단이 38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주 화요일 예배와 친교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miju92@gmail.com

...교회예배와 음악

교자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은 설교를 하는 기능인이다.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원 중 한명인 예배자로서 나를 드러냄이 아닌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성직자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더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성직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의 원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를 강조하는 예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설교중심의 예배가 되면서 "예배는 설교다" 라는 예배철학이 형성되었던 것을 본다. 물론 교단의 성격과 목회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설교중심의 예배가 되면서 "예배는 설교다" 라는 예배철학이 형성되었던 것을 본다. 물론 교단의 성격과 목회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보아왔던 예배의 역사를 보면 설교단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자 그것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iyoon@wm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동부(NY, NJ)교회, 뉴욕세인트마리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and other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2021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K-GOSPEL BAND CONTEST

포스트 팬데믹, 가스펠 밴드로 함께 합니다.
온 세대가 찬양으로 위로와 회복이 되는 K-가스펠 밴드!

총 상금
\$14,000

접수기간

2021년 8월 1일(주일) ~ 9월 15일(수)
접수방법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kgbc.com) 참조바랍니다.

예선: 2021년 9월 29일(수) 온라인 영상 심사
본선: 2021년 10월 27일(수) 무대공연 심사

참가부문: 보컬 밴드(3인 이상)
참가자격: 크리스천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참여 가능 (교회연합 밴드 우대함)
참가비용: 1인당 \$50
시상내역: 대상- 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5,000/1팀)
우수상- 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6,000/2팀)
특별상(작/편곡, 보컬, 연주부문)- 상장 및 상금 (총\$3,000/3팀)
*본선 입상자 전원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및 각종행사 공연 참여

주최/주관: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in LA)

특별후원: 미주 CGNTV / CTS America

협력기관: 총현선교교회 / KCMUSA / Lighthouse Studio / OneHeart / Overflow Ministry

크리스천 BAND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